2026년 7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허남길 목사]

요한일서 5:1 ~ 8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 부모님 계시지요? 아, 이분들이 우리 아빠, 엄마구나 이렇게 믿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까? 1번 손들어보세요. 2번은? 1번에 손들까 싶어서 걱정이 됐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많이 알죠. 또 그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나사렛 예수, 목수하시던 분, 그의 아버지도 목수이고 그의 제자들은 어부인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녀의 몸에 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2천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일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이나 회장님, 대통령이 되면 구원받습니까? 죄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도 알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아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받고 저주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가슴에 얼마나 느껴지는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일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같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옆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일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와 헌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일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할까 싶어서 왔는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고 일하고 봉사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유, 성경에 그 말씀만 없으면 교회 다니기 괜찮은데.. 사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 힘든 것입니다. 계명이 힘든 것은 어렵거나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치료받는 과정에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마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게 한다는 말의 원어상 의미는 즐겁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최고의 쾌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쾌락이며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일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느냐? 예수님은 믿는데 사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놈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매스컴도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고, 교수의 말을 믿고, 학자의 말을 믿고, 기업인의 말을 믿고 가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필요할 때 다윗같이 권력도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기업도 주시고, 대전도자가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요일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물, 둘째는 피, 셋째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일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뭐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성령도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세 번째,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롬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속에서 한 번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지키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이며,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아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요. 그렇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일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은 이 셋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머리와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지켜 나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